



교육가족에게

사서가 전하는 책 이야기

성인 문학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오빠 강민호

이기호/문학동네/2018

성인 비문학



쓰레기 거절하기

산드라 크라우트바술/양철북/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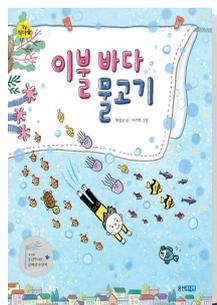
청소년



나에게도 자존감이란 무기가 생겼습니다

고정욱/리듬문고/2019

어린이



이불 바다 물고기

황섭균/웅진주니어/2020

유아



물개 할망

오미경/모래알/2020

성인 문학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오빠 강민호

이기호/문학동네/2018/316쪽

책 속 한 구절

때때로 나는 생각한다. 모욕을 당할까봐 모욕을 먼저 느끼며 모욕을 되돌려 주는 삶에 대해서. 나는 그게 좀 서글프고, 부끄럽다 (33쪽)

부끄러움은 내 몫이다

“역시 이기호”라고 엄지척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천상 이야기꾼이다. 7편의 단편으로 구성된 이 소설집에는 우리 주변에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봄직한 이름이 포함된 제목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다. 그 이름들 만큼이나 흔한 이야기를 포착하여 소설을 써내는 소설가의 시선이 새삼스럽고 놀랍다. 우리 내면에는 서로 상반된 감정들이 얽혀 혼재되어 있다. 동정이나 연민의 이면에는 어김없이 우월감과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처럼 지극히 일상적이고 너절해서 달리 어찌 표현하기가 난감했음직한 이야기들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고 있지만, 결코 진실을 비껴가지 않는 이야기의 힘. 수치, 혐오, 염치, 환대. 관계에서 갖게 되는 온갖 감정과 태도들에 얼마만큼 책임과 진정성을 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목포공공도서관 박은정

성인 비문학



쓰레기 거절하기

산드라 크라우트바슐/양철북/2020/250쪽

책 속 한 구절

세상은 그냥 바뀌는 게 아냐. 늘 소수의 몇 사람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변화가 시작되었어. 그런 행동들이 없었다면 인간 역사에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81쪽)

나부터 실천하는 쓰레기 제로

플라스틱 쓰지 않기를 실천하는 한 가족의 도전기를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포장용기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플라스틱이 없는 삶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개인이 각자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다 보면 세상 역시 조금씩 달라진다. 저자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쓰레기를 거절하는 삶을 친구에서 이웃으로 그리고 지역사회로 이끌었을 것이다. 작은 실천이 무의미하지 않음을, 오히려 세상의 변화는 이런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나주공공도서관 김슬기

청소년



나에게도 자존감이란 무기가 생겼습니다

고정욱/리듬문고/2019/208쪽

책 속 한 구절

살다보면 참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게 인생살이다. 공하고, 부족하고, 불리하고, 갖고 있는 것이 마땅치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서 부족한 여건에서 큰일을 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도 너무 잘 알고 있다 (59쪽)

즐모없는 인간은 없다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로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 즉 자존감은 어린 시절 가족 환경이 자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가족환경이 자존감 발달에 중요한 기본 요소임에는 두 말할 필요는 없다. 환경이 좋지 않다면 자존감은 발달할 수 없는 걸까? 저자 '고정욱'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일급 장애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작가를 만났을 때 자신감이 넘치고 거침없는 모습에 당황한다고 한다. 그 비밀은 자존감에 있다. 우리는 흔히 자존감과 자존심을 잘못 생각하고 행동한다. 자존감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나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힘들게 할 수 있다. 나를 발전시키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존감은 무엇일까? 청소년기에 만나는 진정한 자존감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다.

나주공공도서관 김선영

어린이



이불 바다 물고기

황섭균/웅진주니어/2020/80쪽

책 속 한 구절

눈을 반짝 뺐을 때, 정말 기절할 것 같았다. 내 몸에 하얗게 반짝이는 비늘이 돌아 있었다. 촘촘한 비늘들은 움직일 때마다 작은 무지개를 만들며 더욱더 반짝거렸다. 둥그런 아가미와 날렵한 꼬리도 생겼다. '내가..... 물고기가 됐어!' (9쪽)

상상력이 위로가 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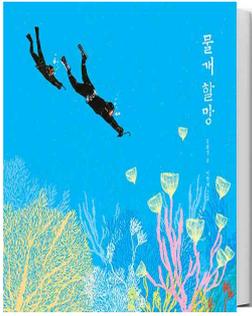
이 책은 「이불 바다 물고기」 뿐만 아니라 「설탕 눈을 만드는 하얀 말」, 「비밀 의자」의 단편 동화 3편이 수록되어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고 싶어 물고기로 변해 할머니를 찾아가는 해성이, 엉뚱한 거짓말을 하는 이모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 거짓말을 믿고 싶은 시아, 아빠가 사준 소중한 가방에 낙서를 한 짝꿍이 미워서 나쁜 말을 하려고 하는 우상이.

3편의 각 이야기 속 주인공 어린이들은 슬프고, 속상한 마음을 상상력을 통해 스스로 위로하는 법을 보여준다.

이 책은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상상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수 있는 책이다.

나주공공도서관 김서영



물개 할망

오미경/모래알/2020/44쪽

책 속 한 구절

바다 밖으로 무사히 나온 뒤 내가 물었어. “할머니는 바다에서 탐나는 거 없었어?” “잇었주.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걸 지키젠 참았주.” “그게 뭔데?” “젤세라, 그게 뭘꼬?” 할망은 빙긋이 웃으며 나를 꼭 안았어 (39쪽)

이 땅의 해녀 이야기

'나'는 오늘도 물질을 하러 나간 '할망'을 기다린다. 할망처럼 '물개' (해녀)가 되고 싶은 나는 생일 선물로 받은 물개 옷을 입고 바다에 나간다. 평생 동안 물질을 하며 살아온 할망이 건네는 말은 “바당에서는 욕심내민 안 돼여.”이지만 나는 그만 물숨을 먹게 된다. '용왕 할망'의 만남과 생사의 갈림길에서 바다 밖으로 무사히 나온 나에게 할망은 빙긋이 웃으며 나를 꼭 안아준다. 이 책은 제주 바다에서 물질하며 살아온 제주 해녀의 삶을 아일랜드 물개 설화와 연결해 새로운 시각으로 그려낸다. 아름다운 제주 방언과 함께 이명애 그림 작가가 그리는 짙은 제주바다의 색과 '물개 옷'(해녀복)이 대비를 이루며 다채로운 이미지를 보여준다. 거친 바다에서 헤엄치면서도 육지에 있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할망들의 강인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싶은 어른과 아이들을 위한 책이다.

화순공공도서관 김민초

